

“고려인 독립운동 희생 기리는 계기되길”

‘광복절 77주년’ 광산 월곡동 고려인문화관 가보니

유해봉환 1주년 홍범도 장군 일대기 작품 전시 15일 다모아어린이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제막 고려인 연해주·신한촌 항일운동...강제이주 고통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누구인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많은 고려인이 ‘독립군의 후예’로서 광복을 위해 제 한 몸을 내던진 사실은 ‘잊혀진 역사’입니다. 때문에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고려인 역시 ‘한민족’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15일 찾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문화관.

문화관 1층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을 맞아 장군의 일대기를 엮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그 중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홍범도 장군의 초상화였다.

초상화는 지난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는 소식을 듣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비토르 회가가 그렸다.

그는 그림에 장군의 기상과 애국정신을 담으며 존경심을 품은 채로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초상화를 본 관람객들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며 “웅장한 기상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특별전시관에 기록된 고려인들의 역사도 눈에 띄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인의 역사는 1863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주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 강변’으로 들어간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자연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경지방 조선인들이 연이어 두만강을 건너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일제의 침탈에 항거한 ‘3·1 운동’이 전

개된 1919년 연해주에서도 고려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은 1920년까지 고려인의 문화 항일운동 근거지가 됐다.

그 시기, 항일무장투쟁의 최일선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에서 보잘 것 없던 병력으로 일본군을 대파했다.

‘봉오동 전투’ 이후 홍범도 장군은 같은 해 10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일본 정규군 1개 대대병력을 섬멸했다.

항일무장투쟁의 대표격인 ‘봉오동 전

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전으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었던 그는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의 모든 고려인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고려극장’의 수위로 일하다 1943년 이국의 땅에서 눈을 감았다.

이날 김경림 월곡고려인문화관 해설사는 “많은 사람들이 수업과 교과서를 통해 홍범도 장군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다시 새기며, 모르는 것들을 배워갔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이어 김 해설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고려인 덕분”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광주 고려인마을은 ‘홍범

도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막식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추모공연을 펼쳤다.

이어 광주 광산구와 고려인마을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과 흉상 건립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감사패는 흉상을 제작한 김희상 작가,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홍우표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장,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받았다.

장원찬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은 1994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남북한의 외교관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장군 묘소를 관리했고, 흉상 건립에도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산구 명예 구민증을 수여받았다. /안재영기자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특별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엮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사진은 김경림 월곡고려인문화관 해설사가 홍범도 장군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재영기자

오늘의 날씨

▶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도

춘천	24/31
강릉	25/31
대전	25/31
대구	27/32
전주	25/30
광주	25/29
부산	27/29
목포	26/28
여수	27/28
제주	27/30
울산	25/28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3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1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세차 1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30 (실내운동 하세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100-100	목포	05:15	10:17
목포	100-60		17:29	22:28
순천	100-100			
여수	80-90	여수	11:18	05:08
			23:44	17:12

▶ 주간날씨

지역	17일/수	18일/목	19일/금
전라(광주)	(24/31)	(23/32)	(25/32)
서울경기(서울)	(23/31)	(23/30)	(24/29)
강원영동(강릉)	(23/28)	(22/29)	(24/30)
충청대전	(22/31)	(22/31)	(24/30)
경상대구	(24/32)	(23/32)	(24/33)
제주(제주)	(27/31)	(27/33)	(28/34)

▶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북구,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 18일 개관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시설

광주 북구가 오는 18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반다비 체육센터’ 전국 1호점을 개관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18일 개최될 개관식에는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광주교육대학교 내 위치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 즐기는 ‘생활밀착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0여명이

투입돼 연면적 4천621㎡,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반다비체육센터’는 1층에 수영장, 아동풀, 가족 샤워실, 체력 단련실, 2층에는 보치아, 배드민턴 겸용의 체육관과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자리한다.

센터는 모든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 적용, 자동문 설치, 휠체어 활동 공간을 고려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센터 내 가족 샤워실 3개를 맞춤형 편의조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시설로 활용하는 등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할 방침이다. /안재영기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위한 집중 안전점검

市, 내일부터 노후 건축물·교통시설 등 635개소 대상

광주시는 15일 “노후·고위험시설 등 635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을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 준비사항 최

초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 자치구, 공사·공단 추진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보고회에서 시는 중앙부처 선정 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노후·고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을 이번 점검 대상 시설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고 점검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점검은 선정된 대상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층건축물 등 인력·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의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점검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에는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로 시민안전관찰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천과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박선경기자

시민모임 “맹탕 뿐인 광복절 축사” 비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급한번없는 ‘맹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15일 논평을 통해 “한·일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오히려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일본의 역할을 한껏 추켜

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다인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셸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름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한국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